

일주문

파라미타문화재단이사장 김기모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 도후 스님은 10월 31일까지 문화재단이운동 활동 수기를 공모한다. (02)723-6165

조계사 법화경 특강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9월 9일~11월 18일 매주 목·금요일 안심당 3층에서 법화경 특별강좌를 개최한다. (02)732-2183

오대산 전국학생백일장 공모전
평창 월정사 주지 정범 스님은 10월 1일~11월 6일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동등학력자를 대상으로 제7회 전국학생백일장 출품작을 공모한다.

마곡사 생명평화 1000일기도일제
공주 마곡사 주지 원해 스님은 9월 8일 마곡사 대광전에서 생명평화 발원 1000일 참회 관음기도를 봉행한다. (041)841-6220

월암 스님 선요 특별강좌
문경 용성선원 선원장 월암 스님은 9월 2일~11월 18일 부산 미타선원에서 매주 목요일 총 10강에 걸쳐 '선요' 특별 강연을 펼친다. (051)253-8686.

능인선원수륙재 봉행
능인선원 선원장 지광 스님은 9월 30일 망상해수육장에서 능인대동수륙재를 봉행한다. (02)577-5800

사명대사 열반 400주기 추모제
밀양 표충사 주지 재경 스님은 10월 9일 표충사 대웅전에서 사명대사 열반 400주기 추모제를 봉행한다. (055)352-4129

불교·사회 포럼 특별 발표회
민병천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9월 8일 마포 다보빌딩에서 '불교와 사회 포럼 특별 발표회'를 개최한다. (02)719-1855

행원문화상 시상식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은 9월 14일 역삼동 대려도에서 제19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불교생활의례원 영불봉사교육
배관성 불교생활의례원 이사장은 9월 7일부터 1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제4기 불교상장례 영불 봉사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02)720-1079

교육부장 법인 스님, 중간브리핑 통해 종도에 호소

승가교육 개선 선택 아닌 '명운'

"상반기 동안 다양하게 논의했던 승가교육 개선 내용을 수렴해 9월부터는 그 내용을 진전시키고 법과 제도를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9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승가대학 교과목 개편 시행 및 각종 승가대학원 설립 추진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스님은 "전 종도에게 평생교육을 통해 법부를 성현으로 만들어 나가라"는 중징 예하의 신년교시와 '교육과 포교를 통한 불교중흥'이라는 제33대 집행부의 원력에 따라 교육원은 지난 8개월 동안 승가교육 개선을 위해 진력해왔다"고 말했다.

법인 스님은 "사회와 역사에 부응하고 자비를 구현하는 승가교육을 위해 교육원은 10여 차례 이상 다양한 공론의 장을 열어 왔다. 이를 통해 승가교육 개선의 질박성과 필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법인 스님

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됐고, 교육기관 및 관계자들의 우려 가득한 목소리 또한 들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원은 그동안 교육위원회 회의, 교육원·교육위원회·교육분과위원회 연석회의, 전문교육기관설립(안) 마련 세미나, 승가교육진흥위원회 회의, 각종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

스님은 "어떤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고 논의의 중이거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내용을 갖고 이해관계자들이 사실 확인 없이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도 목도했다. 이런 모습 또한 승가교육 개선에 대한 종도의 열망이 높다는 반증이기도 긍정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승가교육개선은 선택이 아닌 종단과 불교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우리 승단이 승가교육 개선에 관한 문제를 결단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불조의 해명을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이 도래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조동섭 기자

불국사 주지 선출 선거로 치러질 전망

조계종 제11교구본사 경주 불국사 주지 선출이 그동안 선거 없이 합의추대하던 관례를 깨고 선거로 치러질 전망이다.

제11교구본사 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1일까지 주지후보 접수를 진행한 결과 현 주지 성타 스님과 경주 기림사 주지 종광 스님, 포항 죽림정사 주지 종문 스님, 오서야 주지 장주 스님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불국사는 월산 스님 문화의 단원권속으로 이뤄져 문중화합 등을 이유로 본사 주지의 합의추대는 불문율에 가까웠다. 하지만 최근 문중 내 실세인 前 주지 종상 스님에 대한 반발이 대종스님 사이에서 커지면서 1인 독주체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합의추대 되던 주지 선출이 선거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후문이다.

한편, 불국사의 새 주지후보자를 선출할 신중총회는 9월 9일 오후 1시 불국사에서 개최된다.

조동섭 기자

혜종·덕화·지족 스님 승정 추대

태고종 승정 추대식 및 법계 품서식

혜종·덕화·지족 스님 등 태고종의 세 원로의 스님이 승정에 추대됐다.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은 8월 30일 한국불교전승관에서 승정 추대식을 봉행했다.

이날 승정에 추대된 혜종 스님은 종도들을 위한 지혜말씀을 통해 "여생을 불법홍포와 종단발전을 위해 올곧게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덕화 스님은 "종단의 상징적인 자리에 임하니 어깨가 무겁다"며 "말에 책임지는 자세와 종도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족 스님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종단발전과 증생제도에 한 치도 흐트러짐 없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축하말씀에서 "승정에 추대된 혜종·덕화·지족 스님은 해행(행)이 탁월하고 비지(悲智)가 원융한 고승으로 종도의 표상이 되는 정신적 지도자"라며 "혼란스런 세태에 종단 지도자로서 종단 기강 확립과 종단 발전을 위해 기



8월 30일 태고종 승정에 추대된 지족 스님, 혜종 스님, 덕화 스님(왼쪽부터)

여해 주시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태고종 종헌종법상 승정은 종단 주요 간부를 역임하거나 종도의 사표가 되는 세수 65세 이상 법랍 45세 이상 법계 종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종단 원로 가운데, 총무원 총무원회의의 결의를 거쳐 총무원장이 추대하며, 종도의 수행을 지도하고 종지종풍 선양을 위한 정진에 헌신한다. 현재 태고종에는 16

명의 승정이 있고, 임기는 추대된 날로부터 종신이다.

한편, 태고종은 8월 30~31일 한국불교전승관 대불보전에서 제11차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다. 법계 품서식에서는 39명에게 종사 법계가, 31일에는 종덕(63명), 대덕(48명), 중덕(77명), 선덕(42명) 법계가 각각 품서됐다. 조동섭 기자

사찰, 돈 받으려면 감동 줘라

김재일 소장, 불사심의위원회 설립 등 강조

"문화재관람료가 됐건,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가 됐건 사찰이 돈을 받으려면 그 이상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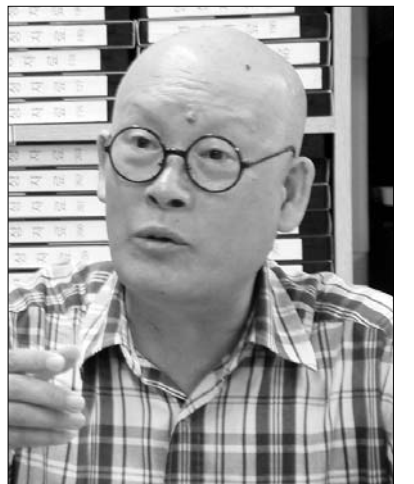
조계종 환경위원 및 국립공원 위원인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소장(사진)은 자연공원법 개정안 발의 소식에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문화재관람료 등을 징수하면서 사찰은 관람객에게 돈만 받을 줄 알았지 베풀 것은 없다"며 "생태·문화적 시점에서 사찰 탐방 프로그램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연공원 내 전통사찰의 불사가 자유스러워지는데 대해서도 크게 우려했다.

"불교계는 규제를 풀어달라고만 했지 이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기구가 없습니다. 불사심의위원회도 총무원장 선거 때마다 공약사항으로 언급만 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재일 대표는 "일부 스님들은 '정부가 (불사 하라고) 규제를 풀어줬는데 무슨 불사심의위원회냐'고 불사를 자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소장

율규제할 기구를 언급하는 것조차 불쾌해하는 것이 불교계의 정서"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오랜 세월 지켜져 내려온 수행환경 보전 등을 위해서는 불교계 내부에서 불사 등 개발 행위에 대해 자율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자연공원법 개정안 발의에 맞춰 불사심의위원회를 설립·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아름다운동행에 건강음료 기부 주식회사 비락

주식회사 비락(대표이사 강종구)은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취즙 등 건강음료 600박스(20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기부받은 건강음료는 '비락 전통 취즙 400박스'와 '자연예찬 복분자 200박스'로 총 14400명이 음용할 수 있다.

강종구 대표는 "비락은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울어름 폭염으로 지쳤을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부물품을 전달받은 아름다운동행은 9월 2일 어르신들이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종로노인복지관, 광진푸드마켓 등 총 6곳의 복지시설에 각 100박스씩 배분했다. 이너는 기자

Advertisement for '이야기 숲을 거닐다' (Walking in the Forest of Stories) by Monk Bo-gyeong. The ad features a large calligraphic title and a background of misty mountains. Text describes the book as a collection of stories from the 'Forest of Stories' in Dongseogok, offering a glimpse into the lives of monks and the joy of the Dharma. The book is published by Minjoksa and priced at 12,000 KRW.